

研究論文

退溪 李滉과 星湖 李瀾의 敎學論 비교 검토
— 退溪 學風이 朝鮮後期 實學 형성에 미친 영향 —

원 재 린*

I. 머리말	IV. 맺음말
II. 自得의 학습법과 朱子 이해	<참고문헌>
III. ‘麗澤’ 강론과 ‘書讀’ 방식	<국문요약>

I. 머리말

퇴계 이황의 사상체계에 담긴 특질과 성격, 철학사의 위상은 그간의 수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구명되어져 왔다.¹⁾ 대체로 퇴계는 조선시대 유학사상의 개창자로서, 주자학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을 제창함으로써 신유학(新儒學) 체계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사상가로 평가되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퇴계는 중세 조선사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통치이념을 주자학에 대한 깊은 천착을 통해 마련하고 제시했던 양반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조선후기사 전공(wonrin@empal.com).

1) 퇴계학 관련 논저 목록과 연구사를 정리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退溪學研究院(편), 『退溪學研究論考提要』, 『退溪學報』, 29(退溪學研究院, 1981); 『退溪學研究論著目錄』, 『退溪學研究』, 3(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89); 『퇴계학연구논총』, 전10권(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7); 금장태, 「퇴계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의 철학』, 18(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0); 김종석, 「퇴계철학 연구 현황과 비판적 검토」, 『韓國의 哲學』, 23(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윤사순, 「퇴계학 연구: 한국학의 발전과 함께 한 발자취」, 『오늘의 동양사상』, 6(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2); 이동희, 「퇴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東洋哲學研究』, 30(東洋哲學研究, 2002).

지식인이었다. 그의 학문 위업은 문인제자들을 거쳐 계승·발전되었으며, 17세기로부터 18세기 이르도록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추동해 나아가는 사상연원이 되었다. 퇴계의 학문과 사상은 16세기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까지 역사발전에 조응하여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변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계기적(繼起的) 관점에서 퇴계학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주목을 끄는 주제가 퇴계의 교학론이다. 학파의 종사(宗師)로서 퇴계가 문인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면서 적용했을 교육과 학문 방법론은 퇴계학을 정립하고, 학파를 형성하여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보여준 퇴계의 교육자적인 면모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남인(南人)내 다양한 학단(學團)이 생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조선 현실에 적합한 철학체계를 확립해 나아가는데 활용되었던 독서법과 경전이해 방식들이 소개되었다.²⁾ 아울러 이기심성론의 발전·계승의 측면에서 영남 남인이나 근기 남인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성과들도 있었다.³⁾

-
- 2) 丁淳睦, 「退溪教學方法論의 哲學」, 『人文學研究』, 7(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985); 丁淳睦, 「朱晦菴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退溪學報』, 53(退溪學研究院, 1987); 金泳,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退溪와 栗谷의 경우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12(韓國漢文學會, 1989); 李鍾虎, 「退溪學團의 讀書論」, 『退溪學報』, 80(退溪學研究院, 1993); 崔錫起, 「朝鮮 前期의 經書 解釋과 退溪의 《詩釋義》」, 『退溪學報』, 92(退溪學研究院, 1996); 鄭낙찬, 「退溪의 人間教育論: 師門手簡을 중심으로」, 『教育哲學』, 15(韓國教育哲學會, 1997); 金彥鍾, 「退溪의 《論語釋義》 小考」, 『退溪學報』, 107·108합집(退溪學研究院, 2000); 金慶天, 「退溪의 經傳認識」, 『退溪學報』, 110(退溪學研究院, 2001); 金煥鎬, 「李退溪 《四書釋義》에 나타난 經學의 特徵」, 『退溪學報』, 110(退溪學研究院, 2001); 姜진석, 「退溪 《朱子書節要》 편집의 方法적 특징과 의의」, 『退溪學報』, 113(退溪學研究院, 2003); 金起賢, 「조선 성리학자들의 四書이해 및 해석에 있어 해석자의 自主性에 관한 연구: 퇴계와 율곡의 사례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35(東洋哲學研究, 2003); 李哈昊, 「《論語集注》의 註釋方式과 그 經學史的 繼承樣相」, 『東洋學』, 35(檀國大 東洋學研究所, 2004); 白珍昊, 「退溪의 工夫論」, 『東洋禮學』, 14(東洋禮學會, 2005).
- 3) 李麗衡, 「實學派의 退溪觀: 星湖·茶山의 경우」, 『退溪學報』, 34(退溪學研究院, 1982); 李楠永, 「星湖 李瀼의 退溪觀과 그의 實學論」, 『退溪學報』, 36(退溪學研究院, 1982); 李相益, 「星湖의 四端七情論: 《四七新篇》을 중심으로, 退溪·栗谷과 관련하여」, 『韓國哲學論集』, 7·8(韓國哲學史研究會, 1999); 金鍾錫, 「近畿 退溪學派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星湖 李瀼의 學問淵源과 退溪學 수용 양상」, 『退溪學報』, 111(退溪學研究院, 2002); 金煥鎬, 「朝鮮時代 儒學者 論語說의 特徵: 退溪·星湖·茶山·良齋說을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16(韓國思想文化學會, 2002); 安영상, 「퇴계학과 내 호발설의 이해에 대한 일고찰: 성호·정대·대산의 논쟁 비교를 통하여」, 『退溪學報』, 115(退溪學研究院, 2004).

본고에서는 이 같은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 퇴계가 자신의 학문체계를 수립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적용해 나아간 교학론의 면모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퇴계가 조선 주자학을 확립하는데 적용했을 교육방식과 경진 학습법에 대한 성격규명은 철학 내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사상적 맥락에서 퇴계학에 내포된 고유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성호 이익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퇴계를 사숙(私淑)했던 성호는 퇴계의 학문 방법론을 적극 수용하여 조선후기 실학(實學)을 대표하는 최초의 학파를 만들어 근기 남인계의 학문전통을 재정립하였다.

우선 퇴계의 교학론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득을 이루기 위해 추구했던 교육방식이다. 주자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조선의 시대상황에 적합한 학문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자득의 학문방법은 조선유학의 고유성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는 자득을 목표로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疾書]’ 독서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성호에게 전수되어 학문 활동 과정에 고스라니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운영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교학론으로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강론 방식을 들 수 있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학단으로서 퇴계학파가 외적인 규모에 못지않게 그 철학적 깊이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제 및 문인 간에 활발한 학문 교류를 조성했던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 학풍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역동서원(易東書院)에서 벌어진 강학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아울러 ‘이택’⁴⁾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麗澤相資]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목했던 주자의 편지글이 차지하는 위상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편찬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다. 이로써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퇴계의 면모를 재정립하며, 그 유풍(儒風)이 전승되어 실학형성기 성호 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 보겠다.

4) 이택(麗澤)의 발음은 중국의 운서(韻書)나 사서(辭書)를 참고해보면 ‘여택’으로 되어 있다. ‘이택’으로 읽혀진 것은 오랜 관습의 결과로 보인다.

II. 自得의 학습법과 朱子 이해

1. 자득의 중시와 주자 인식

퇴계가 지적했던 당대 학문 활동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강론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였다. 그 양상은 상대방으로부터 옳다고 긍정하는 말을 듣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심지어 원수나 원한이 있는 사람 들처럼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정도로 심각하였다.⁵⁾ 퇴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주자의 학문 활동 속에서 찾았다.

퇴계는 주자가 집주와 장구를 정리할 때 임했던 태도에 주목하였다. 당시 주자는 여러 학설의 장점을 취합하였고, 이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이견이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퇴계가 이해하는 주자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는 학자가 아니었다. 여러 학설을 정밀히 검토하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스스로 판단하기에 조금이라도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았던 주석가였다.⁶⁾ 퇴계는 이처럼 합리적인 학자의 면모를 지녔던 주자가 집주와 장구를 정리하면서 얻은 성과로 자득을 들었다. 주자는 선학(先學)의 주설(註說)을 단순히 암기하는 태도를 배격하였다. 또한 박학다식함을 추구하여 많은 서책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태도도 지양했다. 주자는 구두(句讀)와 문의(文義)사이에서 조용히 탐색하고 체험한 뒤에 그 이치를 파악하여 자득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⁷⁾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전의 대의(大義)만을 추구하다가 건강부회하는 잘못에 빠지는 것이었다. 예컨대 『논어(論語)』에서 인(仁)과 의(義)의 이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불과 몇 군데 기록만을 보고, 한 두 글자의 요지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경전에서 단지 글자 한 자의 내용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요지를 자득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바른 의미를 잃어 실질적인 자득을 이룰 수 없게 된다.⁸⁾ 진정한 의미의 자득이란 인을 말한 곳에서는 인의 이치를 구하고, 의를 말한 곳에

5) 『退溪先生文集』(10) 書 「盧伊齋에게 답함」(庚申).

6) 위의 책.

7) 『退溪先生文集』(28) 書 「金而精에게 보냄」.

8) 『退溪先生文集』(35) 書 「李宏仲에게 답함」(乙丑).

서는 의의 이치를 구하며, 효제·충신을 거론한 곳에서는 효제와 충신의 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이치와 도리를 구하여 이에 해당되는 일 마다 실천하여 익숙하고, 두루 관통하며 관찰하게 될 때 비로소 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⁹⁾

퇴계가 상정했던 주자는 자신의 식견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수용하려 했던 학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지식 습득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의에 숨겨진 이치와 도리를 체득하여 실천해 나아갔던 지성이었다. 퇴계는 주자의 이러한 면모를 본받게 되면 자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견해만 주장하거나 구이지학(口耳之學)에 빠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확립된 주견(主見)은 다양한 의견과 학설을 수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점에서 주자는 퇴계에게 사범(師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퇴계는 문인제자들에게 대중지정(大中至正)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위로 떠 있는 잘못이 있다’고 평가한 주자의 언설을 새겨들어야 할 경구라고 강조하였으며, 거듭 구이지학에서 벗어나 자득을 이룰 것을 당부하였다.¹⁰⁾

이처럼 주자로부터 사숙한 교학론은 퇴계의 전반적인 학문 활동에 적용되었다. 그는 자득을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되, 의문스러운 점이 생기면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역시 오랫동안 궁구하여, 마침내 스스로 통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효과가 더디다고 해서 쉽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은근하면서 끈기 있게 학문에 임하는 태도였다. 그렇게 해야 마침내 자득을 이룰 수 있고, 이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학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¹¹⁾

퇴계는 이 같은 학문 방법론을 특히 주자학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경서 역해분야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해서 경문(經文)의 뜻을 잃고 후학들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아 경전의 옛 뜻을 환원하고 성현의 본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¹²⁾ 앞선 시기 선학들의 경학체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설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

9) 위의 책.

10) 『退溪先生文集』(41) 雜著 「心經後論」.

11) 『退溪先生文集』(29) 書 「金而精에게 답함」.

12) 『文峯先生文集』(4) 雜著 「退溪先生言行通述」.

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들 수 있다.

퇴계는 일단 『역학계몽』의 깊은 뜻과 해석들에 크게 감명되었다고 주자의 식견에 존경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이수(理數)의 학문이 갖는 넓고 미묘함을 전제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역학에 담긴 의미는 매우 무궁해서 한 사람의 견해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더 많은 학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¹³⁾ 이때 필요한 학문 태도로 회의를 들었다. 어떤 주해이든 지간에 일단 의심해 보고, 의문점이 생기면 비록 열 번을 고치더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의심하고 궁구하려는 상대방을 원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식해야 했다.¹⁴⁾ 퇴계는 기왕의 주해가 있더라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듭 의문을 품어서 반드시 다른 주해를 덧붙일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해서 경전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새롭게 숨겨진 깊은 뜻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⁵⁾ 기존의 경전해석에 대해 회의하고, 이로부터 자득을 추구할 때 적용되는 독서법이 바로 ‘묘계질서(妙契疾書)’였다.¹⁶⁾

2. ‘疑難’과 ‘疾書’의 독서법

‘묘계질서’는 독서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생길 때 마다 그 내용을 기록해두고 상고(詳考)하는 독서법이였다.¹⁷⁾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疾書]’ 독서법은 경전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였다.

‘질서’의 창시자는 장재(張載, 1020~1077)였다.¹⁸⁾ 그는 『정몽(正蒙)』을 저술할 때 거쳐하는 곳마다 붓과 벼루를 갖추어 두고 혹 밤중이라도 해득한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었는데, 이를 ‘질서’라고 명명(命名)하였다.¹⁹⁾ 장재는

13) 『退溪先生文集』(42) 序 「啓蒙傳疑序」.

14) 『退溪先生文集』(10) 書 「盧伊齋에게 답함」(庚申).

15) 앞의 책, ‘啓蒙傳疑序」.

16) 『退溪先生文集』(10) 書 「盧伊齋에게 답함」(庚申).

17) 『退溪先生文集』(28) 書 「答金惇叔」(癸丑).

18) 주자가 지은 횡거선생찬(橫渠先生贊)에 “정밀하게 사색하고 힘껏 실천하며, 묘하게 계합할 때마다 빨리 기록해두었다. [精思力踐 妙契疾書]”라는 구절이 『晦庵集』(6) ‘六先生畫像贊’에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태허즉기(太虛卽氣)·허공즉기(虛空卽氣)의 이론을 확립하여 기를 물질의 궁극적인 근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생성론과 존재론의 차원으로 전환시킨 기일원(氣一元)의 성리학설을 주장하였다.²⁰⁾ 장재에게 있어서 ‘질서’는 독자적인 성리학설을 완성하는 데 유용한 독서법이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방법은 회의를 통한 자득 성취의 의지가 담긴 독서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질서’에 담긴 이 같은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한 학자가 바로 성호였다.

조선후기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풍을 주창했던 성호는 자신의 학문 연원을 퇴계학에 두고,²¹⁾ 18세기 주자학만을 존송하는 서인·노론 중심의 주류 학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²²⁾ 이에 대응하는 실학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부면에 걸쳐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다. 이때 그가 견지했던 학문 방법론이 회의를 통한 자득의 추구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수용한 독서법이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것이었다.²³⁾

성호는 스스로 궁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남의 것을 본뜨기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지 못하는 학문태도를 비판하였다.²⁴⁾ 그는 ‘질서’의 장점으로 자구마다 의심해서 의심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데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²⁵⁾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을 빠르게 기록해 두었다.²⁶⁾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회의하고 자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마침내 기존 학설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가 확립될 수 있었다. 자득을 달성할 때까지 ‘잊지 않기 위

19) 『星湖僊說』(29) 詩文門 「妙契疾書」.

20) 勞思光, 『中國哲學史: 宋明篇』(探究堂, 1987), 208~230쪽 참조.

21) 성호문인들은 스승의 학문연원으로 퇴계학을 상정하였다(『貞山雜著』(11), 「自序」). 성호학파의 학문방법론은 퇴계학의 일정한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이 퇴계학을 사숙한 면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2) 서인·노론의 주자학 인식과 그 속에 내재된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金駿錫,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展開』(지식산업사, 2003); 金駿錫, 『韓國 中世 儒教政治思想史 論 I · II』(지식산업사, 2005) 참조.

23)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學風연구』(해안, 2003) 참조.

24) 『順菴集』(20) 祝文 「復祭星湖先生文」(甲申).

25) 『星湖全集』(45) 雜著 「書贈克己讀書山堂」.

26) 『星湖全集』附錄(1) 「家狀」.

해서 빨리 써 두는' 방법을 반복해서 실행해야 했다.²⁷⁾ '질서'의 목적은 단순히 회의론을 통해 선현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득을 이루어 주건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있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독서법에 대한 성호의 생각은 퇴계학을 사숙한 결과로 보인다. 퇴계가 '질서'에 주목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경학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퇴계가 활용한 '질서'의 방식을 그의 독서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질서'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독서과정에서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찾고, 글귀에서는 그 뜻을 헤아려 비록 한 자 한 획의 세미한 곳까지도 예사로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글자를 함부로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그 글 위에다 주를 붙이기를 '아무 글자는 마땅히 아무 글자로 해야 할 듯하다'고 적어두었다.²⁸⁾ 실제로 퇴계는 이 방법을 『역학계몽』에 적용하였으며, 읽다가 얻은 것이 있을 때마다 손 가는 대로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뒤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계속 수정하였다.²⁹⁾ 두 차례나 초고를 바꾸면서까지 고구(考究)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질서'의 방식은 단순히 주자 학설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퇴계 역시 자득을 목표로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방법을 채용하여 독자적인 성리학체계를 확립해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³⁰⁾ 퇴계는 『역학계몽』에 대해 상수학(象數學)의 으뜸이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여러 해를 두고 음미 하고 탐색하여 그 근원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했다.³¹⁾

이런 평가는 퇴계가 주자를 존경하던 풍모와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것이 퇴계가 주자학을 수용한 본래 의도였다고 본다. 퇴계는 주자의 학문과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자득을 추구하는 주자의 면모에 주목하였다. 퇴계는 주자가 문인들

27) 위의 책.

28) 「言行錄」, 『讀書 金誠一 錄』

29) 앞의 책, 「盧伊齋에게 답함」(庚申).

30) 주자주설에 대한 퇴계의 관점은 金映鎬, 「朝鮮時代 儒學者 論語說의 特徵: 退溪·星湖·茶山·艮齋說을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16(韓國思想文化學會, 2002) 참조.

31) 『文峯先生文集』(4) 雜著 「退溪先生言行通述」.

의 도움을 받아 주설을 확정하는데 활용했던 학문 방법론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하는데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³²⁾

자득을 목표로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疾書]’ 것은 기왕의 학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얻은 학문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학문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학자들에게 적합한 독서법이였다. 성호 역시 ‘질서’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학문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성과가 제경(諸經) 질서(疾書)로 정리되었다. 총 11종에 달하는 제경 질서는³³⁾ 주자 집주를 포함한 기왕의 주설(註說)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되었다. 성호는 자세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자주석을 대상으로 경전의 자구로부터 훈지(訓旨)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사색하고, 깊이 궁구하는 독서 자세를 견지하였다.³⁴⁾ 또한 주자주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개인적으로 적어두어 계몽해야 한다고 했다.³⁵⁾

성호는 제경 질서를 저술하면서 의문난 점을 해소하고 자득을 이루기 위해서 빈번히 문인제자들과 강론을 펼쳤다. 성호는 제경 질서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문인들의 의견을 구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제경 질서에 대한 자평(自評)에서 잘 남아 있다. 성호는 제경 질서의 내용이 처음부터 자신이 정한 학설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학설을 마련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봉우 간 편지 왕래를 통해 사견(私見)을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³⁶⁾ 마치 주자가 집주와 장구를 확정하면서 문인들의 견해를 적극 받아들였듯이 성호도 주자 주석을 궁구하며 제경 질서를 정리할 때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제경 질서는 상당 부분 제자들과의 문목(問目)을 통한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제경 질서에 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疾書]’ 독서법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32) 『退溪先生文集』(10) 書 「答盧伊齋」(庚申).

33) 질서의 편찬 순서는 「孟子疾書」, 「大學疾書」, 「小學疾書」, 「論語疾書」, 「中庸疾書」, 「近思錄疾書」, 「心經疾書」, 「易經疾書」, 「書經疾書」, 「詩經疾書」, 「家禮疾書」이었다. 특히 성호는 『周易』과 『詩經』에 대해서 전에 저술한 것을 버리고 만년에 다시 고쳐지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朱子家禮』에 대해서도 수 십년 동안 기록해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놓았다.

34) 『星湖傳說類選』(6上) 「經書門」1.

35) 『星湖全集』(49) 序 「孟子疾書序」.

36) 『星湖全集』(25) 書 「慎耳老에게 답함」(甲戌).

서 이루어지는 학문 활동이 아니라 사제 간 강론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일찍이 퇴계가 문인들에게 강조하던 사안이기도 했다.

III. ‘麗澤’강론과‘書讀’ 방식

1. 易東書院 모임과‘麗澤相資’

퇴계는 세상의 의리는 무궁한데도 지나치게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강론을 소개하였다.³⁷⁾ 본인이 경험한 ‘이택’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된[麗澤相資] 사례로 역동서원 모임을 들었다.

본래 역동서원 회합은 피서 목적에서 성사되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경전을 강독하는 자리로 전환되었다. 『심경(心經)』을 강론한 뒤 퇴계는 이 모임으로부터 ‘이택’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강론하는 사이에 개발되는 바가 많아서 옛날에 애매하고 잘못 알았던 내용들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동시에 강론자리에서 느낀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퇴계가 거론한 사안은 주자의 독서법에서 벗어난 사례로서, 자신만의 고정된 견해와 경색된 논설을 말하는 태도였다.³⁸⁾ 그 원인을 개별 논자들의 자질 및 이와 결부된 공부 방법에서 찾았다.

먼저 지적한 사례로 글 뜻에 쉽게 통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겨 다시 더 깊이 연구하거나 공력을 쌓아서 실득(實得)의 학문을 이루어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두 번째로 퇴계는 자질이 전자에 미치지 못한 자로서, 글 뜻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거론하였다. 실득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사례는 그저 남이 정해 놓은 관점 속에 갇히고 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퇴계가 가장 큰 병통으로 여긴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태도였다. 심지어 이런 자들 가운데 잘못 본 곳이 있는데도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

37) 『退溪先生文集』(11) 書 「李仲久에게 답함」(癸亥).

38) 『退溪先生文集』(36) 書 「李宏仲에게 답함」.

례도 있었다.³⁹⁾

역동서원 모임에서 ‘이택’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된[麗澤相資] 효과를 보았던 퇴계가 우려했던 점은 개인의 자질 문제보다도 각각의 사례에서 보여준 잘못된 학문론 내지는 태도였다. 자질 문제를 떠나 실득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깊이 궁구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견해에 얽매이거나 오만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주자의 독서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후학들에게 올바른 학문태도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역동서원 모임에서 퇴계가 상정하였던 주자의 독서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깊이 궁구하여 실득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왕의 주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견해를 폭넓게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거론한 자득을 목표로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疾書]’ 독서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깊이 있는 궁구는 기왕의 학설에 대한 회의를 의미하며, 실득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해진 자신의 식견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올바른 자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짐짓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강론과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견해와 절충해야 한다. 즉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절충하여 공정함을 도모함으로써 자칫 고루해 지기 쉬운 자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 했다.⁴⁰⁾ 이것이 퇴계가 역동서원 모임에서 ‘이택’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된[麗澤相資]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 말의 핵심이었다. 『심경』을 읽고 강론하는 과정에서 ‘친구끼리 연마함이 서로 도움이 된다’는 옛 사람의 말을 실감했고, 그로 인해 전날 깨닫지 못한 곳을 강론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⁴¹⁾

퇴계의 이러한 강론원칙과 방식을 성호가 잘 계승하였다. 성호는 ‘질서’ 독서법에 따라서 주건을 확립할 때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사제, 문생 간 강론을 통해 학문을 진취할 수 있는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성호는 ‘이택’을 성사(聖師)의 가르침이자 후학으로서 반드시 의뢰해야 할 강

39) 『退溪先生文集』(36) 書 「具汝膺에게 답함」.

40) 앞의 책, 「李宏仲에게 답함」.

41) 앞의 책, 「答具汝膺에게 답함」.

론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⁴²⁾ 또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학문의 깊은 뜻에 도달할 수 있는 교학(敎學)이라고 보았다.⁴³⁾ ‘질서’와 함께 ‘이택’ 역시 성호에게 있어서 주요한 교학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성호 당대 시행하였던 ‘이택’ 강론의 면모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강론태도와 관련하여 성호는 강업(講業)시 마치 병든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훌륭한 의원에게 질문하듯 진지하게 열의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⁴⁴⁾ 평상시 그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자신을 찾아오는 빈객(賓客)과 문생(門生)들과 더불어 식사도 거른 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경지(經旨)에 대해서 강론을 진행하였다.⁴⁵⁾ 그 과정에서 성호는 의문난 점에 대해서 문인들과 토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⁴⁶⁾ 직계 문인들 역시 스승의 태도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강론에 참여하였다. 이병휴의 회고에 따르면 강론자리에서 문인들은 난해하여 풀기 어려운 의문점이 있으면 반복하여 질문하였고,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자신의 견해를 굽히고 따르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⁴⁷⁾ 그 자신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의심스러운 곳은 반드시 의심함으로써 해당사안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이렇게 할 때 학문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⁴⁸⁾

‘이택’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던[麗澤相資] 강론방식은 퇴계 이래 남인계로 전수되어 성호에 이르러 주요한 학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⁹⁾ 그것은 기왕의 학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학파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활용되던 유풍이었다.

42) 『星湖全集』(45) 雜著 「書贈克己讀書山堂」.

43) 『星湖僊說』(7) 人事門 「書讀勝面論」.

44) 『星湖僊說』(13) 人事門 「有求讀書」.

45) 『星湖全集』附錄(1) 「家狀」.

46) 『昭南先生文集』(7) 書 「李森煥에게 답함」(戊子 十月).

47) 『貞山雜著』(11) 「祭龍湖尹丈文」.

48) 『貞山雜著』(5) 書 「尹丈書에게 또 답함」.

49) 교학론을 매개로 퇴계와 성호 사이를 이어줄 남인계 학자로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가 주목된다. 성호학인들은 퇴계문인이었던 한강을 성호 학문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상정하였다[강세구, 『성호학통 연구』(혜안, 1999) 참조]. 한강의 교학사상 중에는 퇴계 학풍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교학원리와 절차, 내용들이 들어 있다[丁淳睦, 『寒岡 鄭逵의 敎學思想』, 『退溪學과 韓國文化』, 13(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 참조].

2. 『朱子書節要』의 편찬과 書讀 방식

퇴계는 역동서원의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방식을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문인제자들과의 격의 없는 강론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이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목했던 전범(典範)이 바로 주자의 편지글이었다.

퇴계는 주자의 편지글은 학문하는 방법을 아는데 필수불가결한 교본이라고 여겼다. 그 방법을 알고 나면 반드시 느낌이 생겨 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까지 평가하였다. 퇴계는 주자의 편지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사서(四書)를 다시 보면 성현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자득할 수 있다고 했다.⁵⁰⁾ 주자 편지는 사서로 대변되는 유교 경전을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해야할 대상이었다.

퇴계는 주자 편지를 중시했던 이유로 주자학의 무궁한 의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⁵¹⁾ 주자 사상이 온축된 텍스트로 『주자대전(朱子大全)』이 있지만 사상의 요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⁵²⁾ 상대적으로 주자 편지글에는 사람들이 보유한 능력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얕고 깊음에 맞게 처방된 다양한 가르침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주자의 본의를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평가하였다. 퇴계가 편지글 속에서 배우고자 했던 주자의 무궁한 의리 가운데에는 사제 간에 가르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교학론이 들어 있었다. 퇴계는 편지글을 통해 주자가 마치 증세를 살펴 약을 쓰듯, 사물의 무게에 따라 저울을 달듯, 상대방에 따라 알맞은 가르침을 내린 점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에 억제시키거나 양양시키며, 인도하거나 구원하여, 격려하여 진취시키고, 배척하여 경계시키는 등과 같은 강론 방식도 배울 만 하다고 평가하였다.⁵³⁾

퇴계에게 주자 편지글은 주자학의 본질을 사제 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학문 교유 과정 속에서 사례별로 구분지어 파악할 수 있는 교본이었다. 여기에 더해 주

50) 『鶴峯先生文集』續集(5) 「退溪先生言行錄」.

51) 陳榮捷, 「退溪의 朱子理解」, 『退溪學報』, 32(退溪學研究院, 1981); 강진석, 「退溪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退溪學報』, 113(退溪學研究院, 2003) 참조

52) 『退溪先生文集』(42) 序 「朱子書節要序」.

53) 위의 책.

자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상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육방식을 모색하는데 적합한 기재였다. 결국 주자의 편지글은 퇴계처럼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사제·문인간 활발한 학문교유를 도모하려 했던 학자에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상이었다.

당시 주자 편지를 존송하는 퇴계의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실제로 편지글에만 치우쳐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⁵⁵⁾ 이에 퇴계는 진정한 학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편지글을 보아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는 성현의 글을 읽고 부자(夫子)의 학설을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득 없이 선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구이지학의 폐해를 지적한 말이었다.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자 편지글에 반영된 사우 간에 강론하고 공부에 힘쓰는 내용을 잘 취득해야만 진정한 학문의 길에 접어들어서 진보할 수 있다고 했다. 편지글에서 보이는 사제 간의 활발한 토론은 결국 구이지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해 나아가는 첩경인 셈이었다. 퇴계에게 주자의 편지글은 사우 간에 강론을 벌이고 이를 통해 학문을 성취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사례들을 예시한 교본이었다.⁵⁶⁾ 그래서 다른 어느 것 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겼다.⁵⁷⁾

퇴계는 이로부터 습득한 강론방식을 실제 사제관계에 적용시켜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을 들 수 있다. 퇴계는 제경(諸

54) 퇴계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철학사상의 독창성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입각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다. 퇴계는 16세기 후반 주자학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학리·학설상의 논쟁과정에서 이(理)와 기(氣)를 엄격히 구분하고, 세계 형성의 법칙과 운동의 주재성을 이(理)에서 구하였다. 조선주자학의 성립을 계기로 인간내면의 심성(心性)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실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중세사회를 안정시킬 방안들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졌다.

55) 위의 책.

56) 퇴계는 제자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편지의 주된 내용은 학문적인 것이었다. 퇴계가 보낸 많은 편지들은 한 편 한 편 그 자체가 자신의 심혈을 기울인 학술논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초본을 자신에게도 남겨두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과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이 보낸 글을 읽고 반성하였으며, 그것을 『자성록』이라는 책으로 편집까지 하였다. 이광호, 「남명과 퇴계의 학문관 비교」, 『東方學志』, 118(연세대 국학연구원, 2002), 258쪽.

57) 위의 책, ‘朱子書節要序.’

經) 석의(釋義)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확충하기 위해 월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본문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세밀한 교정까지 요청하였으며, 논평은 물론 반박과 개정까지도 그의 의견을 구할 정도였다.⁵⁸⁾ 이로써 보건대 퇴계와 월천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 간에 가르침을 내려 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이 같은 퇴계학과의 면모는 다른 문인들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자들은 스승이 경전 석의를 위해 제가(諸家)의 훈석(訓釋)을 모아 증정(證訂)한 점을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 사제 간 강론을 통해 교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밝혔다. 스승이 자설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제자에게 묻고 변론하는 강론 과정이 있었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내용을 퇴계가 기록해두었던 것이다. 퇴계문인들은 스승의 강론 방식에 대해 ‘후학에게 베푼 아름다운 은혜’로 간주하고, 대대로 계승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⁵⁹⁾ 퇴계와 문인들이 강론하며 확립했던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방식은 마침내 학풍으로 조성되어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 전승 사례로 성호를 들 수 있다.

성호는 사제간 ‘이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면론(面論)과 편지로 문답하는 서독(書讀)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때 서독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퇴계의 말을 인용하였다. “서로 만나 의논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혹 다른 문제가 생기면 생각했던 말을 다 할 수 없게 되니, 의논할 조항을 낱낱이 적어서 편지를 부쳐 주어 마음껏 자세히 상고하여 도움이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 또 인용하기를 “글을 볼 때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만나게 되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마음과 입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였다.⁶⁰⁾

이처럼 성호는 퇴계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견이 생겼을 때는 서독의 방법이 우수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편지는 논의할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교학수단이였다.⁶¹⁾ 또한 편지는 심사숙고

58) 『退溪先生文集』(23) 書 「趙士敬에게 보냄」.

59) 『退溪全書』(3) 「跋文」.

60) 『星湖僊說』(10) 人事門 「近侍宣召」.

한 내용을 적어 보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한 강론수단이었다.⁶²⁾ 즉 제한된 지면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간결하게 기술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익은 편지를 통해 답문하게 되면 경솔하게 입설(立說)을 제시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그는 편지를 두고두고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점을 지닌 수단으로 평가하였다.⁶³⁾

성호문인 가운데 ‘이택’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기[麗澤相資] 위해 면론과 서독의 방편을 적극 활용한 문인으로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을 들 수 있다. 순암은 스승과의 교유과정에서 네 차례의 면론과 빈번한 편지왕래를 통해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확립해 나아갔다.⁶⁴⁾ ‘이택상자’의 면모는 면론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단 성호는 처음 대면하는 후학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⁶⁵⁾ 배움을 청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 왔는데 자칫 낮선 분위기로 인해 위축되어 묻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우려했던 것이다. 이 같은 배려 덕분에 면론과정에서 순암은 평소에 품고 있었던 관심 사안들을 스스럼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면론과정에서 드러난 한 가지 특징은 성호가 결코 자신의 견해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학의 질문을 충분히 듣고 응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몇 몇 대목에서는 오히려 성호가 순암에게 질문하여 부족한 견해를 보충 받기까지 하였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후학과의 면대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강론의 자리였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면론을 마치고 성호가 순암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한 말 가운데 쓸 만한 것은 자네[순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한 발언이다.⁶⁶⁾

61) 위의 책.

62) 『星湖僿說』(7) 人事門 「書讀勝面論」.

63) 『星湖全集』(45) 雜著 「書贈克己讀書山堂」.

64)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혜안, 1996) 110쪽, 강세구, 『성호학통 연구』(혜안, 2000), 82쪽 참조.

65) 『順菴集』(16) 「函丈錄」.

66) 위의 책.

성호는 먼론을 끝마치면서까지 자신이 해준 말들을 스스로 헤아려 선택적으로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가르침의 방식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강론자리에서 문인들은 난해하여 풀기 어려운 의문점이 있으면 반복하여 질문하였고,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자신의 견해를 굽히고 따르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⁶⁷⁾ 즉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의심스러운 곳은 반드시 의심함으로써 해당사안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학문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다.⁶⁸⁾ 이처럼 첫 대면을 통해 강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던 순암은 경기도 광주(廣州) 터골에 ‘이택재(麗澤齋)’를 건립하여 스승의 유훈(遺訓)을 계승하려 노력하였다.⁶⁹⁾

퇴계로부터 시작된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 강론을 중시하는 학풍 속에는 형식적인 사제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각자의 학문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교학론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같은 강론 방식은 남인계 학통을 통해 후대로 전수되어 마침내 성호에 의해 다시한번 재현되었으며, 그 결과 실학을 대표하는 학단으로서 성호학파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갈 수 있었다.

IV. 맺음말

퇴계학에 내포된 다양한 학문전통은 조선시대 사상발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6세기 중세국가 운영과정에서 초래된 체제모순을 극복하고, 양반 사대부의 지배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 제시된 심성론체계와 경세지향은 학연과 정파의 계통을 따라서 후대로 전승되어 갔다. 특히 퇴계학의 독창성과 고유성은 주자학으로부터 일신(一新)을 도모해야할 국면에서 다시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기왕의 영남 남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퇴계학 계승 노력은 17~18세기를 거치면서 근기 남인으로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성호학파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조선전기 퇴계학파에 의해 조선주자학의 학문전통이 수립되었듯이, 성호학파는 당대

67) 『貞山雜著』(11), 「祭龍湖尹丈文」.

68) 『貞山雜著』(5), 書 「尹丈書에게 또 답함」.

69) 『性齋先生文集』(15) 記 「麗澤齋重修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퇴계학풍에 내재된 실학의 요소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당시 양반지식인들에게 요구되었던 시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다.

각기 시대를 달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계기적 관점에서 연관 지어 보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공유하였던 교학론 때문이다. 퇴계는 주자학을 수용하면서 체득한 자신만의 학문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같은 학풍을 계승한 성호는 질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던 조선후기 현실 속에서 문인들과 함께 주자학의 문제점을 극복할 새로운 학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학론을 적극 활용하여 실학을 대표하는 학파의 면모를 유지해 나아갔던 것이다.

퇴계학이 한국사상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퇴계의 학문과 사상 자체에 대한 성격 규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학문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부면 속에 담긴 사상사적 특성을 간취(看取)해 나아가는 작업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退溪先生文集』; 『文峯先生文集』; 『星湖全集』; 『順菴集』; 『貞山雜著』.

강세구, 『성호학통 연구』. 서울: 해안, 1999.

강진석, 「退溪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退溪學報』 113, 退溪學研究院, 2003, 51~94쪽.

금장태, 「퇴계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의 철학』 18,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0,

金慶天, 「退溪의 經傳認識」. 『退溪學報』 110, 退溪學研究院, 2001, 251~297쪽.

金彦鍾, 「退溪의 《論語釋義》 小考」. 『退溪學報』 107·108합집, 退溪學研究院, 2000, 136~156쪽.

金泳,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12, 韓國漢文學會, 1989, 203~225쪽.

金映鎬, 「李退溪 《四書釋義》에 나타난 經學的 特徵」. 『退溪學報』 110, 退溪學研究院, 2001, 299~324쪽.

金映鎬, 「朝鮮時代 儒學者 論語說의 特徵」. 『韓國思想과 文化』 16, 韓國思想文化學會, 2002, 327~357쪽.

金鍾錫, 「近畿 退溪學派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退溪學報』 111, 退溪學研究院, 2002, 195~240쪽.

- 김종석, 「퇴계철학 연구 현황과 비판적 검토」. 『韓國의 哲學』 23,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5, 51~66쪽.
- 白珍奘, 「退溪의 工夫論」. 『東洋禮學』 14, 東洋禮學會, 2005, 189~219쪽.
- 안영상, 「퇴계학과 내 호발설의 이해에 대한 일고찰」. 『退溪學報』 115, 退溪學研究院, 2004, 125~166쪽.
- 원재린, 『조선후기 星湖學派의 學風연구』. 서울: 혜안, 2003.
- 李楠永, 「星湖 李瀾의 退溪觀과 그의 實學論」. 『退溪學報』 36, 退溪學研究院, 1982, 39~50쪽.
- 이동희, 「퇴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東洋哲學研究』 30, 東洋哲學研究, 2002, 106~129쪽.
- 李鍾虎, 「退溪學團의 讀書論」. 『退溪學報』 80, 退溪學研究院, 1993, 156~179쪽.
- 李旻衡, 「實學派의 退溪觀: 星湖·茶山의 경우」. 『退溪學報』 34, 退溪學研究院, 1982, 8~18쪽.
- 정낙찬, 「退溪의 人間教育論: 師門手簡을 중심으로」. 『教育哲學』 15, 韓國教育哲學會, 1997, 369~368쪽.
- 丁淳睦, 「退溪教學方法論의 哲學」. 『人文學研究』 7, 嶺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985, 901~922쪽.
- 丁淳睦, 「寒岡 鄭述의 教學思想」. 『退溪學과 韓國文化』 1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5, 125~166쪽.
- 丁淳睦, 「朱晦菴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 『退溪學報』 53, 退溪學研究院, 1987, 287~309쪽. 13~26쪽.

국문 요약

16세기 이래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당대 사회현실에 적합한 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퇴계 이황은 주자의 교학론(教學論)에 주목하였고, 이를 조선주자학 체계 수립에 적극 활용하였다. 퇴계가 인식했던 주자는 신유학의 창시자로서 경전 집해 과정에서 여러 주설을 모아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조하여 자신의 학설을 집대성한 유학자였다. 이같은 주자상은 퇴계가 자득의 관점에서 본인의 견해를 세우고, 새로운 사상체계를 마련해 나아가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전 학습단계에서부터 자득을 이루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疾書]’ 독서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주자를 포함한 선현들의 학설에 대해 거듭 회의하였고, 그 결과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설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같은 학문전통은 시대변화에 조응하여 기성의 사상체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학자들에 의해 면면이 계승되었다.

퇴계 학풍의 전개과정에서 주목해 볼 학자가 바로 성호 이익이었다. 성호는 근기 남인계 학문전통 속에서 퇴계학을 사숙(私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수받은 교학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학문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과 형성과정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에 힘쓰는[麗澤]’ 강론이었다.

퇴계는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麗澤相資]’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학문 활동 과정에서 퇴계는 제자들과 격의 없는 강론활동을 펼쳤다. 이때 주목했던 텍스트가 주자의 편지글이었다. 주자가 여러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문인제자들에게 학설을 전수하기 위해 펼쳤던 다양한 교육방식이 담겨져 있었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가 주자에게서 주목했던 다채로운 교학방법이 담겨진 교본이었다. 이렇게 ‘이택’강론은 ‘잊지 않기 위해서 빨리 써 두는’ 독서법과 함께 성호학과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성호는 퇴계를 계승하여 중세사회 해체기 양반지식인에게 요구되었던 시대과제를 문인들과 함께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풀어갈 수 있었다.

● 투고일 : 2009. 1. 5.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주제어(keyword) : 퇴계(退溪, Toegye), 교학(敎學, teaching and learning), 성호(星湖, Seongho), '질서독서법(疾書讀法, Gilseudokpub)', '이택강론(麗澤講論, Itakgangron).